



어린이 시기 독서 경험을 통한 습관 형성의 교육적 의미: 존 듀이의 습관 개념을 중심으로¹⁾

박영호²⁾

²⁾ 광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philia@ghu.ac.kr)

《국문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존 듀이의 교육철학을 이론적 토대로 삼아 어린이 시기 독서 습관 형성의 중요성과 교육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독서를 경험의 재구성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의 도구로 재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존 듀이(John Dewey)의 교육철학을 중심으로 어린이 독서 습관 형성의 교육적 의미를 탐구하는 교육철학적 문헌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민주주의와 교육』, 『경험과 교육』 등과 같은 듀이의 주요 저서를 중심으로 습관, 성장, 경험의 재구성, 상호작용, 연속성 등의 핵심 교육 개념들을 추출하고 그 철학적 의미를 면밀히 분석하여 독서 습관 형성의 맥락에 적용하여 해석하였다.

연구결과: 어린이 시기는 가소성이 높아 습관 형성에 결정적 시기이며, 이때 형성된 습관이 평생의 성장을 좌우한다. 듀이의 관점에서 독서 습관은 텍스트와 상호작용하며 경험을 재구성하는 ‘능동적이고 지성적 태도’이다. 독서는 어린이의 흥미에서 출발하여 경험의 지평을 넓히는 ‘하나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독서 습관은 어린이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내용을 삶 속에 통합하며, 스스로 배우는 방법을 익히게 하는 성장의 핵심 기제로 작용한다.

연구결론: 독서 교육이 단순한 기술 훈련이나 평가적 활동을 넘어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능동적인 삶의 태도 형성이 되도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 및 학교 교육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구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독서는 세상과 만나는 경험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상호 작용하는 근원적인 활동으로서, 어린이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가 평가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성장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주제어: 독서 습관, 경험의 재구성, 연속성, 상호작용, 가소성

1) 본 연구는 2024년도 광주보건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o. 2024010).

I. 서론

현대 사회에서 독서는 역설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AI 기반의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 속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매 순간 생성되고 쏟아지는 정보에 대한 접근은 편리하고 쉬워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를 쉽고 빠르게 접근하여 이를 제대로 읽고 이해하여 정보 제공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인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언어로 이루어진 글에 대한 이해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독서가 기본으로 필요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서가 도움 되는 부분에 대한 대답으로 학생들은 ‘정보 수용과 해석 능력’을 가장 높은 비율로 뽑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4: p. 15). 독서는 책으로 세상을 간접적으로 마주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살아가는 데에 유익한 정보를 얻기도 하며 학습 능력과 사고력을 향상하고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활동이다.

독서 활동은 문제해결 능력과 탐구 정신을 함양하는 중요한 교육적 도구이다. 어린이는 책 속의 다양한 상황과 문제를 접하며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고, 등장인물의 갈등과 해결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문제해결 전략을 학습한다. 이러한 경험은 실제 생활에서 마주하는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하며, 호기심과 탐구심을 자극하여 능동적인 학습자로서의 태도를 형성한다. 결국 어린이 시기의 독서 습관 형성은 단순한 읽기 능력의 개발을 넘어,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평생학습의 기초를 마련하는 과정이다. 부모와 교사는 어린이가 독서를 통해 경험을 확장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풍부한 독서 환경을 제공하고, 능동적인 독서 활동을 격려해야 한다. 이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디지털 매체 확산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독서 환경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편리하게 빠른 속도로 자극적이고 과편적인 콘텐츠를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매체에 대한 노출이 만연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번거롭고 느리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독서 습관 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독서 습관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책을 선택하여 독서하는 일정한 행동 방식이나 상태로, 자신의 사고방식과 행동이 변화되는 것으로 정의된다(이진구, 2012). 이에 따라 문해력이 강조되면서 어린이에게 독서 습관 형성이 강조는 되고

있지만, 이전의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독서를 통한 인지 발달, 학업 성취에 효과적인 독서법, 독서 치료, 전자책 읽기, 독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것이고(김명희, 김경미: 2024; 김영식, 김민석, 이길재: 2019; 김수연, 김향중: 2015; 이은경, 김기영: 2017; 전예림, 최영인: 2025; 조미아: 2010; 최윤경, 정연경: 2014; 허정희, 조미아: 2019), 정작 독서 습관 형성에 내재된 교육적 논의는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독서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만드는 태도, 즉 ‘습관’에 대한 논의는 그 중요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독서 교육은 주로 국어 교과의 과제물이나 평가물로써 다루어지거나, 교육부나 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인 데다가, 갈수록 전반적인 독서율도 하락 추세이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독서량도 급격히 저하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24: p. 11). 더군다나 이러한 독서 교육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독서는 저울대 위에 올라가서 눈금에 따라 측정되어 평가된다. 몇 권을 대여했는지, 몇 편의 독후감을 작성했는지, 새로 만들어낸 평가지에 따라 측정된 독해력은 몇 점인지 등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지표로 독서 교육을 평가하고 있다(김경주, 2021; 노원경, 2024; 이빛나, 2020; 정수정, 최나야, 2018; 최숙기, 2021). 정작 왜 읽고 싶었는지와 같은 독서 그 자체에 대한 정의적 요인에 따른 교육적 성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의적 요인은 독자의 감정, 흥미, 동기와 관련된 것으로 실제 독서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드는데,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지 못한다면 자발적인 독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의적 영역에 대한 교육적 접근의 중요성이 주목받았으며, 독자의 정의적 요인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다양한 독자 요인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전예림, 최영인: 2025: p. 398). 독서 장애요인에 대한 조사에서도 시간이 없거나 다른 매체를 활용한다는 외재적 요인에 관한 응답들을 제외하면 습관이 들지 않았다는 내재적 요인이 가장 높은 순서로 나타나는데 이는 성인과 학생 모두 평소 독서에 대한 재미를 통한 습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문화체육관광부, 2024: p. 16). 독서 습관 형성이 아닌 독서의 기술적인 부분에만 국한된 교육적 환경은 단순히 개인의 문해력 저하를 넘어, 미래 사회의 필수 역량인 비판적 사고와 사회적 소통 능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현대 교육 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존 듀이

(John Dewey, 1859-1952)의 교육철학을 중심으로 어린이 독서 습관의 교육철학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듀이는 교육의 목적을 ‘성장(growth)’과 ‘경험의 재구성(reconstruction of experience)’으로 설정하며, ‘습관화(habituation)가 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그에게 있어서 습관화는 단순한 기능의 반복을 통한 훈련이 아닌 삶의 경험을 재구성하는 활동이 된다. 경험은 상호작용(interaction)과 연속성(continuity)의 원리에 의해 구성되며, 교육은 그러한 경험의 끊임없는 재구성이다. 교육은 경험의 계속된 재구성, 즉 경험이 성장하는 과정으로서 그 과정과 목적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이다(Dewey, 2024/1897: p. 270). 듀이 경험의 연속성 개념은 초기 경험이 후속 경험의 질을 형성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평생 교육의 의미가 커지는 미래 사회에서 어린이 시기의 독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중요성은 듀이가 정의한 습관의 본질과 직결되는데, 듀이에게 진정한 의미의 습관이란 단순히 반복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지성적 삶의 태도로 확장되는 역동적인 상태를 가리킨다. 즉, 습관은 곧 성장이 표현되는 과정을 드러내며, 따라서 교육은 이러한 좋은 습관의 형성을 매개로 하여 개인이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도록 돕는 필수적인 과정이 된다. 독서 경험은 바로 이러한 지성적 습관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초기 경험인 것이다.

듀이에게 습관은 단순한 반복적 행동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능동적이고 지성적인 태도와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듀이의 습관 개념은 독서 태도 형성을 통해 독서를 단지 정보를 수용하는 수동적 행위가 아닌, 적극적인 탐구와 문제 해결 과정으로 인식하게 하는데, 이는 독자가 텍스트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며 질문하고, 의미를 구성하며, 비판적 사고를 발휘하는 지성적 습관을 형성하는 것을 돕는다. 또한 독서를 통해 형성된 능동적이고 지성적 습관은 성장의 기반이 된다. 독서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은 어린이 시기 이후에도 학습을 지속하게 하는 동력이 되어, 자기 주도적 독서 능력과 탐구력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초기에 형성된 독서 습관은 이후의 모든 학습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쳐서 전 생애에 걸친 긍정적인 학습 경험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듀이의 교육철학을 중심으로, 어린이 독서 습관 형성의 교육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 어린이 시기 독서 경험을 통한 습관 형성은 왜 중요한가?

연구 문제 2 : 듀이의 교육철학적 개념들은 독서 습관 형성의 맥락에서 어떤 특징을 지니며, 어떻게 어린이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사고를 촉진하는 데에 교육적 의미를 제공하는가?

연구 문제 3 : 듀이의 경험주의 교육철학은 현대 어린이 독서 습관 형성에 가정과 학교 교육에서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본 연구는 듀이의 텍스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그가 제시한 교육의 핵심 개념들을 추출하고, 어린이 독서 습관 교육의 맥락에서 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독서 습관 교육을 단순한 읽기 기술을 습득하거나 정보를 수용하는 차원이 아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텍스트와 능동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독서 습관으로 인해 내용을 삶 속에 통합하며 재구성하게 되는 온전한 의미의 성장을 돕는 것으로 재해석할 것이다.

II. 듀이의 경험과 상호작용

듀이의 습관 개념이 어떤 특징을 지니며 어린이의 독서 습관 교육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기 위하여, 우선 그의 교육 개념을 분석하고자 한다. 듀이는 교육을 경험의 계속된 재구성(continuous reconstruction of experience)이라고 정의한다(Dewey, 2008/1916: p. 141). 이것은 교육을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가면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성장 과정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다. 교육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목적으로 둘 때 현재 경험을 활용하여 올바른 방향으로의 성장 발달은 멀어지고, 오로지 막연한 미래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Dewey, 2024/1938: p. 172). 듀이는 진정한 교육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모든 경험이 교육적인 것은 아니다. 기계적인 습관을 고착시키거나, 다른 경험과 단절되어 성장과 무관한 비교육적인 경험(mis-educative experience)이 있는데 전통적 교육은 바로 이런 비교육적인 경험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한다(Dewey, 2024/1938: p. 151-153, 157, 173, 193, 221).

듀이가 보기에 교육적 경험은 연속성(continuity)과 상호작용(interaction)의 원리를 함의하고 있다. 연속성의 원리에 따라 교육적 경험은 습관을 형성하여 미래에 마주하게 될 경험에 영향을 주게 된다.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선행 경험과 후속 경험에 영향을 주어 계속되는 성장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상호작용 원리에 따라 교육적 경험은 개인의 내적인 조건과 사회환경¹⁾의 외적인 조건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흥미를 느낀 학습자가 환경과 만나서 작용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반응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탐구할 때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 경험을 지적으로 성찰하여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까지 포함해야 하는데, 이 지적 성찰은 모종의 행동을 하는 능동적인 단계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수용과 숙고의 단계를 거친다. 어떤 경험이 교육적인 경험인지를 평가하는 방법은 그 경험의 상호작용과 연속성의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인데, 경험을 통합된 것으로 상호작용과 연속성을 유의미하게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서 교육적 경험인지 알 수 있게 된다(Dewey, 2024/1938: pp. 163-164).

듀이가 말한 경험의 연속성 원리와 상호작용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경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듀이는 경험 이론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전통 교육에서 대체로 경험을 지식보다 열등한 것이나 실천 위주의 것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경험의 관점에서 교육은 경험 내에서, 경험에 의한, 경험을 위한 발달이라고 정의한다(Dewey, 2024/1938: p. 138). 전통 교육을 주장하는 자들의 관점에서 경험은 이론적인 부분이 모자란 불완전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 결과 교육의 실제에서 이론은 주로 고차원적이고 더 우수한 것으로 다뤄졌고, 경험 위주의 실용 위주 내용은 상대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배치되었다. 고등학교를 인문계와 실업계, 특성화고 등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점이 바로 이런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듀이는 오히려 경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이론이 생생하고 검증이 가능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듀이에게 있어서 인간의 감각 경험은 이론 습득을 위한 선제 조건이기 때문이다(Dewey, 2008/1916: p. 227).

1) 듀이가 말하는 환경이란 시공간적으로 개체의 주변에 산재해 있는 사물과 사람 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의 교호작용에 열려있는 능동적인 개체를 포함하여 그 주변 사이에 있는 특수한 연속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삶이란 단순한 수동적 생존이 아니라, 능동적 활동의 방식을 뜻하며, 환경은 그 활동을 지속시키거나 좌절시키는 조건으로서 그 활동 속에 들어오는 요소를 가리킨다(Dewey, 2008/1916: p. 53).

모종의 활동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자전거에 대한 이론적 지식 습득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수차례 넘어지고 흔들리면서 다양한 상황에 반응하고 신체의 힘을 조정하면서, 과거의 경험에 새로운 경험을 덧대어가면서 비로소 비결(know-how)를 얻게 되는 것이다. 활동 속에서 형성되는 목적은 현재의 관심과 필요에 기초하고 있고, 주어진 상황에 있는 모든 갈등적인 요소 또는 서로 별개가 되는 조건들을 조화롭게 해서 형성되는 이상적 목적이다(허경섭, 2008: p.51).

이론과 경험의 격리는 교육을 왜곡하는 위험한 이원론²⁾이다. 경험 없는 이론은 그저 언어적 파편과 논증만 남게 될 것이다. 사고와 행동을 분리하지 않은 채로, 삶 속에서 목적 지향적으로 활동하면서 경험을 계속해서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습관적 사고와 행위에 대한 제어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즉, 듀이의 경험 개념은 이론과 실천, 지식과 경험, 몸과 마음과 같은 전통적 이원론을 거부하고, 경험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유기체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며 의미를 구성하고 성장하면서 가능성을 발현하는 통합적 과정으로 재정의한다. 이는 교육이 통합적으로 실천적이고 경험적이어야 하며, 습관을 형성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경험의 연속성 원리(principle of continuity)는 현재의 경험이 경험의 당사자에게 특정한 습관을 형성시키며, 이 습관이 미래의 경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어떤 경험이 교육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학습 경험이 학습자에게 미래에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더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작용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어떤 경험이 무기력한 지식의 습득에 머물거나 단순 암기의 단계에 고착해서 미래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다른 경험들과 분절되어있다면 비교육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교육적 경험은 주위 사물에 관해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게 하거나, 주변 자극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 수도 있으며, 미래의 경험에 더욱 풍성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능동적이거나 창의적이지 못한 채

2) 구체적인 경험으로부터 모든 유리하는 삶의 환멸은 지적 탐구가 일상적인 경험의 대상들 사이에 나타나고 성숙할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비극적인 실패를 부가시키게 되었다. 나는 현재의 얼마나 많은 냉소주의, 무관심, 비관주의가 그들이 이룩한 지성의 탈선 때문이라는 것을 일일이 헤아릴 수 없다 (Dewey(1981, 정덕희, 2005에서 재인용)).

기계적인 습관에 고착되어 성장할 경험의 범위를 줄임으로 인해 경험의 질을 떨어뜨리며 이런 경험들은 산만하며 일관성 없는 태도와 유용한 결과를 얻을 미래의 기회를 상실하도록 만든다(Dewey, 2024/1938: p. 130).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는 체계화되고 논리적인 지식으로부터 삶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얻지 못하며, 지적 탐구를 위한 흥미와 학습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사고하는 능력이 위축되게 된다(Dewey, 2024/1902: p. 89). 이처럼 계속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중단되는 경험은 교육 개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경험의 의미를 확장하여(add to) 활동들의 관련성을 더 잘 지각될 수 있도록 계속된 성장에 끊임없이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송도선, 2021: p. 162).

경험의 상호작용 원리(principle of interaction)는 경험이 발생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으로, 경험이 결코 개인 내부에서만 일어나거나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교육의 상황에서 경험은 독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과거 경험, 흥미, 필요 등이라고 할 수 있는 내적 요소와 교사, 교과서, 사회문화적 상황, 수업 환경 등과 같은 외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킨다. 어떤 경험이 교육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첫째로 학생의 흥미 등 내적 요소와 환경 등의 외적 조건이 유의미하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둘째로 그 상호작용의 결과가 미래의 긍정적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연속성을 지니는지로서, 두 가지 측면을 통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게다가 연속성 원리와 상호작용 원리는 상보적이다. 연속성 원리에 따라서 교사가 학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일련의 교육 상황이 잘못하면 강요나 강제적인 지시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듀이는 상호작용 원리를 통해서 교사 자기 생각을 학생에게 직접 강요하거나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내적 요소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외적 요소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이끌 수 있다고 본다(Dewey, 2024/1938: p. 165).

교육의 목적은 활동과의 관련 하에 활동들 간에 상호작용이 이뤄져야 의미로 쓰이게 된다. 따라서 무언가를 행하고, 그 결과를 겪으며, 이 둘 사이의 연결을 인식할 때 진정한 경험이 발생한다. 활동이 일어나면서 그 과정 중에 형성되는 목적이 그 과정을 통해 비로소 구체적인 의미가 밝혀지고 계속해서 수정되는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과 활동은 따로 둘 수 없다. 교육은 바로 이러한 경험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독서를 통한 간접 경험은 어린이의 경험 범위와 인식의 지평을 물리적, 시간적 제약 없이 넘어서고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경험하며 지식을 얻으며, 다양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인간의 본성과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을 넘어 추상적인 개념, 이론, 논리를 이해하고 내면화하게 하여 고차원적인 사고력과 분석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직접 경험이 구체적 현실 속에서 신체적 활동과 감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황적이고 감각적 지식을 즉자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 독서를 통한 간접 경험은 이러한 직접 경험을 개념화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지적 도구와 정서적 깊이를 제공한다. 두 경험은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사고의 확장과 함께 실제적인 적용을 통해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Ⅲ. 어린이 시기의 독서 경험과 습관 형성의 교육적 의미

어린이 시기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결정적 시기로, 이때 형성되는 교육적 경험은 향후 성장과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사의 주된 임무는 학생이 경험을 통해 어떤 종류의 습관과 태도가 형성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습관이 학생의 연속적인 성장에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학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즉 교육을 경험의 끊임없는 재구성이라고 정의 내리는 듀이에게 경험의 연속성 원리는 과거의 경험이 현재 경험의, 현재의 경험이 미래 경험의 질을 형성하고 결정한다는 점에서 특히 어린이 시기 교육과정의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독서는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다양한 간접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의 하나이다. 독서 습관은 독서에 대한 긍정적이고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꾸준한 독서 경험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올바른 독서 태도와 능력이 잘 갖추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백순미, 2014: p. 65). 책을 통해 어린이는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과거의 역사, 먼 나라의 문화, 상상 속의 세계를 탐험하며 인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을 이루어간다.

1. 어린이 시기 독서 습관 형성의 중요성

듀이는 『경험과 교육』에서 전통적 교육의 비교육적 학습경험으로 인한 독서 거부 현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책이라면 어렵고 딱딱하며 지겨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험이나 과제로 주어진 경우가 아니면 책을 읽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위대한 생각을 담고 있는 책은 어렵고 지겨워서 읽을 엄두도 못 내고 그저 저속하고 가벼운 책만을 읽도록 조건화되어 쓸데없는 책에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며 삶의 참의미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되었습니까(Dewey, 2024/1938: p. 133)!

듀이의 경험주의 교육철학은 이러한 독서 교육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듀이는 교육을 경험의 의미를 더해 주고, 후속되는 경험의 방향을 결정하는 능력을 향상하는 경험의 재구성 또는 재조직으로 정의한다(Dewey, 2008/1916: p. 141). 이 관점에서 독서는 단순히 텍스트의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활동이 아니라, 독자가 자신의 기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텍스트와 능동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교변과정(trans-action)³⁾이다. 어린이는 책을 읽으며 새로운 정보를 자신의 경험 체계 속에 통합하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이해를 재구성하며 성장하게 된다.

듀이가 강조한 ‘성장’의 핵심 특징은 더 많은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성장은 살면서 경험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독서 습관은 바로 이러한 지속적 성장의 도구로 기능한다. 독서를 통해 어린이는 경험을 확장하고, 자신의 경험을 더 깊이 이해하며, 새로운 관점을 통해 기존 인식을 재구성하는 능력을 기른다. 더 나아가 독서 과정 자체를 통해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메타 학습 능력을 발달시킨다. 이렇게 형성된 독서

3) 듀이는 인간과 환경과의 긴밀한 관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inter-action 대신에 trans-ac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넘어서서 본래의 모습과 내적인 부분까지도 변화되는 것을 잘 보여주기 위한 것, 즉 경험 중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인한 유의미한 변화를 단편적인 물리적 작용이 아닌 상호 관계적인 활동과 인식의 변화 작용의 의미도 포괄하는 것으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보인다.

습관은 어린이가 평생 학습자로 성장하는 토대가 되어, 형식적 교육이 끝난 후에도 스스로 책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을 갖추게 한다. 초등학교 시기에 형성된 독서 습관은 이후 중학교 시기의 독서 습관 형성에 단순히 책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욱 유효한 영향을 끼친다(한다혜, 이국희: 2021, p. 68). 지속적인 독서 습관을 형성하게 하려면 더 어린 시기에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어린이 시기는 인간 발달에서 가소성(plasticity)⁴⁾이 가장 높은 시기로, 이때의 교육적 경험은 평생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생물학적 특성은 어린이 시기가 습관 형성과 학습에 있어 결정적 시기임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며, 특히 독서 습관과 같은 복잡한 인지적 활동이 이 시기에 효과적으로 내면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듀이가 말하는 가소성은 두 가지 핵심적인 능력을 포함한다. 첫째는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능력으로, 어린이가 겪는 경험이 단순히 일회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새로운 성향과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를 통해 어린이는 자신의 행동 패턴과 사고방식을 새롭게 구축해 나간다. 가소성은 이전 경험 요소를 잘 명심하였다가 나중의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또는 확고한 성향을 발전시키는 능력이다(Dewey, 2008/1916: p. 99). 이 두 가지 능력이 결합할 때, 어린이는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된다. 간접경험으로서의 독서 습관 형성은 이러한 가소성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대표적인 예로, 반복적인 독서를 통한 경험을 통해 어린이는 텍스트와 상호작용을 하는 능력을 내면화하고 평생 지속될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4) 가소성은 본질상 경험을 통하여 학습하는 능력, 하나의 경험에서 배운 것을 나중의 문제 사태를 해결하는 데에 활용하는 능력이다. 이것은 곧 이전 경험의 결과에 비추어 행위를 수정하는 능력, 또는 한 마디로, '성향을 발달시키는 능력'이다. 그 능력이 없이는 습관의 획득이 불가능하다(Dewey, 2008/1916: p. 96). 신경 가소성은 뇌가 경험, 학습, 환경 변화에 따라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공완욱, 2024: p. 24) 즉,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고 성장하며 습관을 획득하는 근본적인 능력으로서 가소성은 본질적으로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하나의 경험에서 배운 것을 후속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는 이전 경험의 결과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여 성향을 발달시키는 능력을 가리킨다. 이러한 능력이 없다면 습관의 획득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독서 교육의 관점에서 가소성은 독서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지성적 습관 형성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듀이는 『민주주의와 교육』 제4장에서 성장으로서의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미성숙(immaturity) 개념을 재해석하고 있다. 미성숙이라는 말은 나중에 나타날 힘이 현재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재 발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Dewey, 2008/1916: pp. 93-94). 전통적으로 미성숙은 부족함이나 결핍의 상태로 여겨졌지만, 듀이는 오히려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긍정적 상태로 보면서 이를 통해 더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았다. 어린이가 지닌 불확실성은 곧 변화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이 바로 교육이 개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바라본 것이다. 불확실성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성장의 가능성이다. 미성숙한 존재로서의 어린이는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소성을 지니며, 이는 교육의 무한한 가능성이 실현되기에 최적이다.

흥미롭게도 듀이는 어린이의 의존성(dependence) 역시 교육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재해석했다(Dewey, 2008/1916: pp. 95-97). 일반적으로 의존은 자립하지 못한 약함의 표시로 여겨지지만, 이것을 사회적 관계 형성의 필수적인 출발점으로 보았다. 어린이가 성인에게 의존하는 것은 단순한 무력함이 아니라, 타인과 연결되고 의사소통을 배우며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는 과정의 시작이다. 이러한 의존적 관계 속에서 어린이는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습득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된다. 독서 과정이 단순히 책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구성하는 과정이라기보다 그 의미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재구성하고 이를 사회적 실천의 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삶과 삶의 성장을 도모한다(이희용, 2015: p. 96). 독서 습관 형성 과정에서도 의존에서 독립으로의 점진적인 전환이 나타난다. 초기에 어린이는 부모나 교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여 어떤 책을 읽을지 안내받고, 함께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며, 읽은 내용에 관해 대화를 나눈다. 성인인 부모는 독서의 모델이 되어 어린이에게 책 읽는 즐거움과 방법을 보여준다. 독서 친화적인 가정 환경 속에서 독서 습관을 익힌 어린이들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점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강보미, 2024; 오태순, 2009; 최나야, 노보람, 최지수, 오태성, 2021).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부모에게 의존하여 독서하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점차 스스로 독립하기 위한 과정이다. 부모의 교육적 지원을 받은 어린이는 점차 스스로 책을 선택하는 능력을 기르고, 혼자서도 텍스트를 읽게 되며, 독립적으로 의미를 해석하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독자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의존에서 독립으로의 전환 과정이야

말로 교육의 본질적 과정이며, 특히 어린이기의 높은 가소성은 이 전환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든다. 가소성, 즉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는 능력은 습관의 형성으로 나타난다(Dewey, 2008/1916: p. 109).

어린이 시기에 형성된 독서 습관은 단순한 행동 패턴을 넘어 사고의 틀과 학습 방식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토대가 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교육적 개입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부모와 교육자는 어린이의 가소성을 이해하고 의존에서 독립으로의 건강한 전환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가소성은 본질상 경험을 통하여 학습하는 능력, 하나의 경험에서 배운 것을 나중 문제 사태를 해결하는 데에 활용하는 능력, 이전 경험의 결과에 비추어 행위를 수정하는 능력, 성향을 발달시키는 능력으로, 이것 없이 습관의 획득은 불가능하다(Dewey, 2008/1916: p. 97). 이처럼 가소성은 어린이가 평생 학습자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교육적 과제이다.

어린이 시기의 독서 교육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매우 인상적이다. 박진숙(2011)의 20년 추적 연구는 유아기에 부모와 함께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한 어린이들의 성장 과정을 자세히 관찰했다. 연구 결과, 이들은 책에 대한 접근성, 독서 습관, 사고 능력, 어휘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발달을 보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모의 관심과 지원이 어린이의 독서 습관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다. 가정 교육 차원에서 부모의 역할은 독서 습관 형성에 있어서 결정적이다. 읽기에 대해 좋고 싫음을 무의식적으로 인식해서 자신의 의지로 읽기 활동에 대해 반응하는 정도에 관한 연구에서 학생들이 부모의 읽기 태도와 같은 성향의 읽기 태도를 보이는 비율이 74.3%에 달했다(김대희, 엄해영, 2012: p. 48). 부모가 항상 독서에 관련된 사고와 태도에 모범을 보여주어서 흥미를 유발하는 것은 향후 긍정적인 독서 습관으로 발전하고, 부모가 책을 읽어주는 것을 즐거운 일이라고 배우게 되면 성장하면서 스스로 독서하게 된다(백순미, 2014: p. 82). 이는 독서 습관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타고난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환경과 부모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과정임을 보여준다. 상호작용이라고 할 때에는 경험 속에서 함께 작용하는 객관적이고 외적인 요소와 주관적이고 내적인 요소가 함께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Dewey, 2024/1938: p. 159). 즉, 어린이 시기의 독서 교육은 단순한 인지 능력 향상을 넘어서 장기적인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는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를 모범으로 보여줌으로써 어린이가 독서를 통해 경험을 확장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풍부한 환경을 제공하고, 능동적인 독서 활동을 격려해야 한다.

이 시기 독서 교육의 효과는 다양한 발달 영역에서 나타난다. 언어적 감수성과 표현력의 향상은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한 성과이며, 이는 학업 성취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서은숙, 정옥년(2022)의 연구에 따르면, 독서 습관을 갖춘 청소년들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유연한 사고, 온화한 성품,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춘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다. 독서를 통해 기른 집중력은 다른 학습 활동으로 전이되어 전반적인 학습 능력을 향상하고, 책을 스스로 선택하고 읽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발달한다. 더 나아가 다양한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며 평가하는 경험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이 함양되는데, 이는 미래 사회에서 필수적인 역량이다.

발달심리학의 연구들은 어린이 시기가 독서 습관 형성의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임을 일관되게 보여준다(김소영, 2015; 조영숙, 2021; 하미경, 2017). 이 시기는 뇌의 언어 영역이 가장 폭발적으로 발달하고, 언어 인식 및 기초적 문해력이 형성되는 시기로, 텍스트를 해독하는 기술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독서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가 확립되는 때이다. 어린이는 이 과정에서 단순히 글을 읽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독서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긍정적인 정체성을 구축한다. 듀이의 관점에서 습관은 행동 경향성이자 지성적인 성향으로서, 이렇게 형성된 정체성과 습관은 평생의 독서 패턴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이 시기에 부모와 교사가 제공하는 독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어린이 시기에 형성되는 독서 습관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나 학습 도구를 넘어서는 큰 의미가 있다. 어린이가 책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독서를 즐거운 활동 경험으로 인식하며, 스스로 책을 찾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평생에 걸친 지적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활동 경험은 삶 속에서 독서를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과 관련한 활동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텍스트 이해를 넘어서 텍스트를 단서로 해서 독서 활동에 습관을 지니게 되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려고 하는 인지적 과정을 수반한다(이희용, 2015: pp. 64-65). 반대로 이 시기에 독서와 부정적인 경험을 하거나 독서 습관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책을 멀리하게 되고, 이는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듀이의 교육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어린이 시기의 독서 습관 형성을 놓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기술을 배우지 못하는 차원을 넘어 평생에 걸친 성장의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다. 마음은 모종의 실체를 가진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성에 의해 방향 지어진 행동의 진행을 의미하며, 이 행동은 목적을 가진다(Dewey, 2008/1916: p. 216). 마음이 교육적 성장의 내용이라면 경험의 의미를 지각하면서 마음이 길러지는 형식은 습관을 통해서이다(허경섭, 2008: p. 114). 독서 습관을 형성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된 사람은 지속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도구를 갖추지 못한 것이며, 이는 단순히 직업적 성취뿐 아니라 개인의 전체적인 삶의 질과 자아실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와 교육자, 그리고 사회 전체는 어린이 시기 독서 습관 형성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듀이의 관점에서 본 어린이 독서 습관 형성의 교육적 의미

현대의 독서 교육은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첫째, 독서가 평가의 대상이 되면서 과업화되었다. 독서량 체크, 독후감 제출, 독해력 시험 등이 일상화되면서 독서 자체의 즐거움보다 평가 결과를 위한 외적 동기가 지배하게 되었다. 이는 형식적 독서를 양산하고 독서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형성시키며, 경험의 재구성이라는 진정한 성장을 방해한다. 둘째, 획일화된 독서 교육이 개인차를 무시하고 창의성을 억압한다. 같은 학년의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책을 읽고 같은 방식의 독후 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수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위한 선택이겠지만, 독서 능력과 흥미, 배경지식이 다른 어린이들의 다양성이 무시된다. 독서를 통해서 정해진 정답 해석을 암기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이나 비판적 사고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셋째로, 독서가 어린이의 실제 삶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교과서나 지정 도서 위주의 독서, 형식적인 주제 연결, 창의성 없는 반복적 독후 활동은 독서를 어린이의 현재 관심사나 필요와 무관한 활동으로 만든다. 이러한 독서에는 진정한 행위도, 의미 있는 경험도 비어 있다.

듀이의 경험 개념은 인지적 요소를 포함하며, 목적이 있는 활동 속에서 일어나고,

습관과 기술의 형성을 통해 강화되며, 실제 행함을 통해서만 습득되는 것이다. 경험을 통해서 습관을 갖게 되며, 일단 형성된 습관은 제2의 천성과 같은 것으로서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조건에 반응하는 일정한 태도와 반응 경향을 이루며, 후속 경험에 어떤 식으로든지 작용하면서 영향을 미친다(Dewey, 2024/1938: p. 97). 학습자의 독서 경험은 독서 상황에서 나아가 거시적인 맥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독자의 성공적인 독서 경험이 지속될 때, 학습자의 성공을 이끌며, 이를 통해 삶의 성장이 삶에서 이어질 수 있으며 독서 경험을 통해 성장을 하게 된다(이희용, 2015: p. 40). 그뿐만 아니라, 습관은 단순히 고정적 행동 양식을 넘어서서 태도, 즉 정서적이고 지적인 태도의 형성을 포함하며 삶에서 마주하는 상황에 반응하는 기본적인 반응 양식도 포함하고 있다(Dewey, 2024/1938: p. 147). 따라서 교육은 주로 실천적이고 능동적이며 문제에 참여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처럼 듀이의 교육철학은 독서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데에 유의미하다.

듀이의 경험주의 교육철학은 어린이 독서교육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민주주의와 교육』에서 제시된 그의 교육 원리들은 독서가 단순한 기능 습득이 아닌 경험의 재구성 과정임을 보여주며, 이는 현대 독서교육 실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행동을 '학습'하게 됨으로써 유아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행동의 요소들을 이리저리 바꾸면서 여러 가지로 조합을 달리하는 방법을 필연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하나의 행동을 배우는 동안에 다른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방법'을 발전시킨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진보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 '학습의 습관'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다(Dewey, 2008/1916: p. 98).

경험의 연속성 원리는 모든 경험이 이전 경험에서 나와 다음 경험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과정임을 강조한다. 이를 독서교육에 적용하면, 어린이의 현재 독서 수준과 관심사를 정확히 파악하여 출발점으로 삼되, 각각의 독서 경험이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가 되도록 체계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연속성은 단순히 난이도의 점진적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인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과 조화를 이루며 확장되는 나선형 성장 과정을 의미한다.

경험의 상호작용 원리는 모든 경험이 개인의 내적 조건과 외적 환경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같은 책이라도 독자의 배경지식, 정서 상태, 발달 단계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독서교육은 풍부한 다양한 도서, 편안한 독서 공간, 충분한 독서 시간 등과 같은 독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각 어린이의 개인차를 존중하고 독서를 둘러싼 사회적 상호작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책에 관한 대화, 독서 경험의 공유, 함께 읽기 활동 등은 독서를 고립된 개인 활동이 아닌 풍부한 사회적 경험으로 확장한다. 듀이의 관점에서 독서는 경험과 분리된 별개의 활동이 아니라 경험의 일부이자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수단이다. 어린이의 직접 경험은 독서의 동기와 기반이 되며, 독서를 통해 얻은 간접 경험은 다시 실제 생활로 연결되어야 한다. 바다를 다녀온 어린이가 해양 생물 도서에 더 큰 흥미를 보이는 것처럼, 삶의 경험은 독서를 의미 있게 만든다. 반대로 요리책을 읽고 실제 요리를 해보거나, 과학책의 실험을 직접 수행해 보는 것처럼 독서가 구체적 활동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학습을 한다. 이러한 순환적 과정을 통해 어린이는 자신의 경험을 언어화하고, 막연했던 감정과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이는 듀이의 경험이 함의하는 상호작용 원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황이다.

듀이의 습관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진정한 독서 습관은 단순한 외적 행동 패턴이 아니다. 습관은 일종의 행동 기술, 즉 행동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다(Dewey, 2008/1916: p. 99). 그것은 텍스트에 대한 민감성, 능동적 의미 구성 태도, 경험과의 연결 능력, 비판적 평가 자세, 지속적 탐구 성향을 포함하는 복합적 역량으로서,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여,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독해 전략을 적용하면서도 일관된 능동적 자세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하다. 습관은 환경에 대해 일정하게 반응하여 균형을 유지하려는 수동적 경향성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조건에 맞추어 변화하고 성장하려는 능동적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이중적 특성으로 인해 습관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습관 간에도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발전한다. 습관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반드시 그 습관을 행사하는 데에 알맞은 조건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추구하는 행동 경향성을 함의한다(Dewey, 2008/1916: p. 102). 그렇기 때문에 습관의 계속된 움직임 없이는 성격 형성도 불가능하다. 습관에 내재한 지적 요소는 현재 경험의 여러 조건을 검토하고, 경험을 효율적으로 체계화하여 목적

에 맞게 나아가도록 이끈다.

두이에게 있어 교육의 목적은 더 많은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 자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능동적이고 지성적인 독서 습관은 단순한 기능적 숙달을 넘어, 어린이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가장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 독서 습관은 물리적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경험의 지평을 확장하고, 어린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여 경험의 의미를 심화시키며,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존의 이해 방식을 재구성하는 역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독서는 전형적인 경험의 재구성 활동이다. 독서 행위는 독자가 텍스트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 경험과 지식 체계를 총동원하여 텍스트와 능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독서 활동은 새로운 정보와 관점을 통해 자신의 기존 경험의 지평과 사고 체계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갱신하며 재구성하는 행위이며, 이 과정에서 어린이는 학습하는 방법 그 자체를 배우게 된다. 이는 독서 습관이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넘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주체적으로 적응하고 사유하는 지성적 태도를 함양함을 의미한다. 결국, 어린이 시기에 형성된 올바른 독서 습관은 외부의 강요나 형식적인 교육 체계와 무관하게 스스로 책을 통해 경험을 재구성하고, 삶의 의미를 확장해 나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어린이의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은 그들의 현재 관심사와 연결된 책을 제공하되, 점진적으로 흥미를 확장하고 심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공룡에 관심 있는 어린이에게 공룡 책을 제공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생물학, 진화론, 지질학으로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다. 만화책에서 시작하여 그림책, 동화, 소설로 나아가는 과정은 급격한 도약이 아닌 점진적 확장이어야 하며, 각 단계에서 부모는 어린이가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안내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어린이의 현재 수준과 관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교육적 내용과 연결하는 고리를 만들며, 점진적으로 확장하면서 교육적 순간을 포착하는 섬세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독서를 의무나 과제가 아닌 자연스러운 성장의 도구로 만들며, 평생 학습자로서의 토대를 형성하는 데에 필요하다.

가정에서의 독서 환경 조성, 부모의 모델링, 도서관 이용의 생활화,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독서 교육 등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린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금석이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가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 깊이 있는 사고와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독서 습관의 형성은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긍정적인 독서 태도를 통해 독서 능력과 독서 활동이 상호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렇게 길러진 독서 능력은 독서 활동을 다시 원활하게 이끌게 되고, 이는 다시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하게 되어 독자의 지속적 성장을 돕는 기반이 되는 독서 경험의 성장 과정을 통해, 평생 독자이자 성장하는 독자로 나아가게 된다(이희용, 2015: p. 81). 독서 습관을 형성이 단순히 책 읽는 행위에 친숙해지고 능률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삶에 전반적으로 선순환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IV. 논의 및 결론

독서 교육의 시작도, 그 목적도 결국 책을 읽도록 하는 것이다. 일단 책에 관심을 가지고 읽기 시작한 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 효과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논할 수 있다. 독서 교육은 궁극적으로 읽는 습관을 갖춘 독자 양성에 그 지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읽는 것에 몰입하고 읽게 되는 동기를 찾는 것, 즉 독서 습관은 독서 교육의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 시기는 초보 독자가 능숙한 평생 독자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책 읽기가 일상에 녹아 든다면 긍정적인 독서 습관 형성과 함께 효과적인 문해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는 학습에 대한 의지와 흥미를 불러일으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큰 초석이 된다.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한 듀이의 핵심 개념들을 독서 교육의 맥락에서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독서 습관은 경험의 재구성 능력에 유의미하다. 듀이가 정의한 교육의 본질, 즉 경험의 계속적 재구성에서 독서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독서를 통해 어린이는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자신의 경험을 더 깊이 이해하며, 새로운 관점으로 세계를 재해석한다. 독서 습관을 형성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둘째, 독서 습관은 새로운 경험에 유연하게 반응하게 한다. 독서 습관이란 텍스트의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텍스트를 자신만의 시선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새로운 지식과 자신의 세계를 유연하게 연결

하는 지성적 태도이다. 이러한 능동적 독서 습관은 고정되지 않고 창조적으로 적응하며, 새로운 경험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된다. 셋째, 독서 습관은 성장의 도구이다. 듀이에게 교육의 목적은 더 많은 성장을 가능케 하는 성장이다. 독서 습관은 바로 이러한 성장의 도구이다. 독서를 통해 어린이는 경험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하며, 더 복잡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독서 습관을 형성한 사람은 평생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듀이는 경험에 작용하는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통합된 완결 상태에 이르게 되는 ‘하나의 경험’을 통해 경험 주체의 삶에 질적인 변화를 불러온다고 한다(Dewey, 2018/1934: p. 88). 이에 따르면 독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연속되는 상호작용으로서 하나의 경험이다. 독서를 통해 지적, 정서적, 사회적 자극을 받고, 과거, 현재, 미래를 연계하여 삶을 통찰하고 내면화하며 실천하는 독서 경험이야말로, 듀이의 하나의 경험과 상통하며, 독자의 총체적인 모습이 담긴 가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서은숙, 정옥년, 2022: p. 135).

이와 같은 듀이의 경험주의 교육철학을 현대 독서교육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활동의 구성단위인 가정과 학교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동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가정에서의 접근을 살펴보자면 부모의 독서 모델링은 어떤 교육적 개입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부모의 책 읽어주기 활동은 어린이의 독서 태도와 읽기 동기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은 많은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김신영, 채미선, 임동선, 2022; 연혜민, 현은자, 2016; 임동선, 김신영, 한지윤, 박원정, 송은, 이상언, 김윤희, 윤소망, 2018; 정대현, 신원애, 2011).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학생들의 독서 활동 경험은 학교 독서 활동(57.8%), 개인 독서 표현 활동(55.2%), 학교 독서 모임(23.7%), 가족 친구 등과의 독서 모임(15.8%) 순으로 부모와의 독서 활동 경험 비율이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4: p. 18). 부모가 일상적으로 책을 읽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책을 읽으라는 많은 말보다 효과적이다. 이는 독서가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생활의 자연스러운 일부임을 보여주며, 어린이는 이를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하게 된다.

특히 어린이 시기 부모와 함께 읽기는 평생 독서 습관 형성의 토대가 된다. 고유경(2017)의 연구에 따르면, 여가에 독서 습관을 지니고, 변화된 독서 습관을 통해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을수록 어린이의 읽기 효능감이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글자를 가르치거나 내용을 이해시키는 차원을 넘어, 책과 함께하는 시간이 따뜻하고 안전하며 즐거운 경험임을 체득하게 하기 때문이다. 잠자리에서 들려주는 이야기, 무릎에 앉아 함께 보는 그림책, 번갈아 가며 읽는 동화책 등의 경험은 독서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형성하고,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되는 독서의 동기가 된다.

이와 더불어 가정의 물리적 독서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 거실, 침실, 화장실 등 집안 곳곳에 책이 자연스럽게 놓여 있고, 편안한 독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가족이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경제적 여유의 문제가 아니다. 가치관의 문제이며,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 도서관 방문을 정기적으로 하고 독서 내용과 일상생활이 연결되면 어린이의 기본 생활 습관에도 유의미한 결과가 발생한다(정명자: 2019, p. 287). 서혜전(2013)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의 도서관에서 책을 통한 독서 친화적 교육을 부모에게 하고 이를 가정으로 돌아가서 부모가 자녀에게 적용하였을 때 자녀의 독서 활동 동기와 언어 관련 능력을 향상하는 등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책에 대한 일상적 대화는 독서를 가족 문화로 정착시키는 핵심이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와 함께 "요즘 무슨 책 읽니?"가 자연스러운 대화 주제가 되고, 식사 시간에 각자 읽은 책의 재미있는 부분을 나누며, 가족이 함께 서점이나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이 일상이 될 때, 독서는 특별한 과제가 아닌 삶의 일부가 된다. 따라서 부모는 지식을 전달하거나 독서를 감독하는 권위자가 아니라, 함께 읽고, 함께 성장하는 학습 공동체의 일원이다. 부모 자신이 독서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그 모습 자체로 가장 강력한 교육이 된다.

독서는 단순히 책을 읽을 수 있는 물리적 환경 제공이나 책을 읽어주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책을 매개로 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좀 더 포괄적인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듀이의 경험 철학을 독서 교육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접근과 함께 학교 교육에서 독서가 일회성 활동이 아닌, 삶의 연속적인 경험이자 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구조화해야 한다. 인지적인 수행뿐 아니라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독서에 대해 어떤 동기를 지니는지, 어떤 심층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또한 이를 확인하는 행위만으로 교사와 학생 간 독서를 매개로 한 라포를 형성

하게 하며 수업 내 각종 활동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노원경, 2024: p. 20).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적 실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 시간의 제도적 확립과 개별화된 접근을 통해 독서가 평가의 대상이 아닌 순수한 즐거움과 탐구의 과정임을 체득하게 해야 한다. 이때 교사는 독서를 강요하거나 검사하고 평가하는 역할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하여 독서 발달을 돕는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독서를 별도의 교과 활동이 아니라, 통합적 교육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 어린이가 자신의 관심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과정으로서의 독서를 통해, 독서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것을 넘어, 실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이자 사고의 확장이 되는 어린이의 삶과 밀접한 독서를 가능하게 한다. 셋째, 독서에 대한 계량적 평가가 아닌, 독서 일지와 반성적 기록을 포함한 포트폴리오 평가, 성찰의 빈도와 토론 참여도를 고려한 성장 지향적 평가 지표가 대안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어린 초등 1~3학년 시기에는 독서와 일상 연결하기 학습을 통해 어린이의 생활과 연계된 읽기 및 이야기 재구성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초기 독서 경험의 긍정적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추상적 사고가 발달하는 4~6학년 시기에는 텍스트에서 문제를 추출하고 질문을 생성하여 탐구하는 심화 독서 활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과정의 변화는 이를 뒷받침하는 물리적, 심리적 환경의 조성을 통해 완성된다. 학교마다 도서관은 다양한 규모로 설립되어 있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 체계에 따라 독서교육도 관련 법안들(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조,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 등)이 있지만 교육과정과 도서관의 연계 및 활용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김경주, 2021: p. 8). 듀이가 강조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독서 교육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교 환경의 재구조화 역시 필요하다. 첫째, 접근성을 극대화한 풍부한 물리적 독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학급과 학교 도서관에는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도서를 충분히 비치하여 언제든지 책에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 개방성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쿠션, 빈백, 독서 코너 등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편안한 독서 공간을 조성하여, 학교라는 공간이 아이들을 독서로 자연스럽게 초대하고 부담 없이 방문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학교 내에 독서를 통한 배움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학교 도서관을 도서의 비치, 보관, 대여하는 장소를 넘어, 지적 탐구

와 대화가 일어나는 역동적 학습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함께 책을 읽고 추천하며 토론하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독서가 개인적 행위를 넘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성장의 과정이 되도록 학교 전체의 문화가 도서 친화적으로 되어야 한다.

독서교육은 학교만의 책임도, 가정만의 과제도 아니며,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적 프로젝트이다. 이를 통해 독서가 평가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도구로, 의무가 아닌 즐거움으로, 고립된 활동이 아닌 공동체적 경험으로 재정립될 때, 진정한 의미의 잘 읽는 사회로, 성장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현대 독서교육이 직면한 과업화, 획일화, 삶과의 분리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듀이가 제시한 경험 중심, 학습자 중심, 성장 지향의 교육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독서가 평가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도구로, 획일적 과제가 아닌 개별적 경험으로, 삶과 분리된 활동이 아닌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과정으로 재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듀이가 강조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가정 내에서 부모와의 정서적 교류로 구체화할 수 있다. 책을 매개로 한 대화, 잠자리 머리맡에서의 책 읽어주기, 주말 도서관 나들이와 같은 활동은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행위를 넘어서, 어린이에게 부모의 온기와 관심을 만끽할 수 있는 정서적 경험 그 자체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독서의 총체적 경험이 아동의 문해력 향상이라는 인지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긍정적 애착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맞벌이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단절되기 쉬운 현대 가정에서, 독서를 매개로 한 공유된 경험은 가족 구성원을 정서적으로 연결하는 데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철학적 문헌 연구로서 경험적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거나 검증하지 않아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 경험적 연구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또한 듀이의 교육철학이 아닌 독서 교육에 관한 다른 이론적 관점들에 대한 관점을 다루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관점들을 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듀이의 이론이 100여 년 전의 미국에서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 역사적 차이를 고려한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지만 이러한 차이를 부분적으로만 다루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한계를 보완하고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듀이의 원리에 기반한 독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의

독서 습관에 따른 교육적 효과를 종단적으로 추적하는 연구가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듀이와 루소, 몬테소리, 프레이리 등의 사상가들의 독서 교육을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통합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독서 습관 형성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는 미래 교육에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보미 (2024).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가정독서환경에 대한 인식: 중요도와 실행도 분석(IPA)을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31(4), 45-71. <https://doi.org/10.22155/JFECE.31.4.45.71>.
- 고유경 (2017). 특수교사의 책읽기 습관이 읽기 교수 효능감에 미치는 읽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공완욱 (2024). 미술교육에서 창의성 계발을 위한 뇌과학 기반 접근 방법. **미술교육연구논총**, 79, 1-35. <https://doi.org/10.35657/jae.2024.79..001>
- 김경주 (2021). 교과 교육과정 및 독서교육 정책 분석을 통한 학교 독서교육 체계화 방안 연구.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대회, 엄혜영 (2012). 부모의 읽기 태도에 대한 학생의 인식과 학생의 읽기 태도와의 상관성 연구. **한국초등교육**, 23(4), 39-51. <https://doi.org/10.20972/kjee.23.4.201212.39>.
- 김명희, 김경미 (2024). 학급단위 독서치료를 병행한 상호작용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또래관계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교양학연구**, 11(2), 41-70. <https://doi.org/10.55450/hilas.2024.11.2.41>.
- 김소영 (2015). 뇌 과학적 관점에서 그림책 읽어주기가 유아에게 미치는 교육적 의미.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수연, 김향중 (2015). 진로인식 중심 독서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 **사회과학연구**, 26(3), 249-265. <https://doi.org/10.16881/jss.2015.07.26.3.249>.
- 김신영, 채미선, 임동선 (2022). 가정의 책읽기 환경이 학령전기 아동들의 수용 및 표현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27(1), 14-26. <https://doi.org/10.12963/csd.22874>.
- 김영식, 김민석, 이길재 (2019). 독서 활동이 고등학생의 인지적, 비인지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 1121-1139.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2.1121>.
- 노원경 (2024). 초등학생 문해력 실태 분석 및 교육 지원 방안 탐색: 4~6학년을 중심으로.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문화체육관광부 (2024). 2023년 국민독서실태조사.
- 박진숙 (2011). 유아기 독서교육이 향후 독서습관 및 도서관 이용습관 형성에 관한 사례 연구 :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백순미 (2014). 가정독서환경과 자녀 독서 습관 사이의 관계 분석. **중등교육연구**,

- 62(1), 61-92. <https://doi.org/10.25152/ser.2014.62.1.61>.
- 서은숙, 정옥년 (2022). 자전적 내러티브에 나타난 청소년 독자의 독서 경험 분석 - 상징 자원 활용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연구**, 17(4), 131-160. <http://dx.doi.org/10.15815/kjcaes.2022.17.4.131>.
- 서혜전 (2013). 유아를 위한 지역도서관-가정 연계 문학적 접근 활동의 효과. **인간발달연구**, 20(2), 23-42. G704-000726.2013.20.2.004.
- 송도선 (2021). **존 듀이의 경험 중심 교육사상**. 서울: 학지사.
- 연혜민, 현은자 (2016).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과 독서 태도, 독서 지도가 유아의 읽기 태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6(6), 497-523. <http://dx.doi.org/10.18023/kjece.2016.36.6.021>.
- 오태순 (2009). **가정의 독서환경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빛나 (2020). 읽기 효능감과 쓰기 효능감, 읽기 상위인지와 쓰기 상위인지 상관 관계 연구. **청람어문교육**, 78, 67-113. <http://dx.doi.org/10.26589/jockle..78.202011.67>.
- 이은경, 김기영 (2017). 인지발달에 따른 도서관 이용과 독서성향 연구: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4(3), 179-207. <http://dx.doi.org/10.3743/KOSIM.2017.34.3.179>.
- 이진구 (2012). **대학생의 독서습관과 독서 실제**.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희용 (2015). **성장을 위한 경험 교육으로서의 독서 교육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임동선, 김신영, 한지윤, 박원정, 송은, 이상언, 김윤희, 윤소망 (2018). 책읽기 부모교육이 부모의 전략, 아동의 발화,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전이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53(2), 179-206. <http://dx.doi.org/10.15861/kjse.2018.53.2.179>.
- 조미아 (2010). 소외된 어린이를 위한 독서프로그램 효과 연구 -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2), 199-220. [doi.org/10.4275/KSLIS.2010.44.2.199](http://dx.doi.org/10.4275/KSLIS.2010.44.2.199).
- 조영숙 (2021). **서사 텍스트를 활용한 독서치료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 전예림, 최영인 (2025). 전자책 읽기 활동이 초등학생의 읽기 태도 및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초등교육**, 36(3), 397-418. <http://dx.doi.org/10.20972/kjee.36.3.202509.397>.
- 정대현, 신원애 (2011). 유아기 부모의 독서지도 인식 및 실태.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2(1), 137-163. G704-001817.2011.12.1.017.
- 정덕희 (2005). **듀이의 교육철학**. 서울: 문음사.
- 정명자 (2019). 작은도서관 이용이 유아의 기본생활습관형성에 미치는 효과. **독서아카데미연구**, 1, 271-308. <https://doi.org/10.36699/ARR.1.10>.

- 정수정, 최나야 (2018). 초등학생 읽기동기 척도의 타당화 및 기준 연구. **아동교육**, 27(1), 215-240. <http://dx.doi.org/10.17643/KJCE.2018.27.1.12>.
- 최나야, 노보람, 최지수, 오테성 (2021). 가정의 독서환경 군집에 따른 유아 어휘력과 읽기 흥미의 차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2), 23-37.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22.23>.
- 최숙기 (2021). **대면·비대면 연계 학교 독서교육 발전 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 최윤경, 정연경 (2014). 어린이 독서프로그램의 성과 측정 도구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1(1), 7-29. <https://doi.org/10.3743/KOSIM.2014.31.1.007>.
- 하미경 (2017). **종이그림책과 전자그림책을 활용한 독서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상대적 효과**.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다혜, 이국희 (2021). 초등학생 때 독서 습관이 중학생 때의 독서 행동에 미치는 효과. **감성과학**, 24(3), 61-70. <https://doi.org/10.14695/KJSOS.2021.24.3.61>.
- 허경섭 (2008). **듀이의 교육목적론 연구- 활동 속에서 형성되는 목적의 성격에 비추어 본 교육목적으로서 성장의 의미**. 박사학위 논문, 영남대학교.
- 허정희, 조미아 (2019). 초등학생을 위한 독서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 아들의 개인심리학을 기반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3), 167-190. <http://dx.doi.org/10.16981/kliss.50.3.201909.167>.
- Dewey, J. (2008). **민주주의와 교육**(이홍우 역). 서울: 교육과학사(1916).
- Dewey, J. (2018). **경험으로서의 예술 I**(박철홍 역). 서울: 나남(1934).
- Dewey, J. (2019). **인간본성과 행위 I**(최용철 역). 서울: 도서출판 봄(1922).
- Dewey, J. (2020). **존 듀이의 경험과 교육**(엄태동 역). 서울: 박영스토리(1938).
- Dewey, J. (2024). **아동과 교육과정 / 경험과 교육 / 나의교육신조**(박철홍 역). 서울: 문음사(1902 / 1938 / 1897).
- Kostelnik, M. J., Whiren, A. P., Soderman, A. K., & Gregory, K. M. (2008). **영유아의사회정서발달과 교육**(박경자, 김송이, 권연희, 김지현 공역). 서울: 교문사(1987).

ABSTRACT

Educational Implications of Habit Formation through Reading Experience in Childhood: Focusing on John Dewey's Concept of Habits

Park, Young-Ho¹⁾

¹⁾ Associate Professor, Gwangju Health University

- Purpose:** Using John Dewey's educational philosophy as a theoretical basis,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importance and educational significance of forming reading habits in children. Through this, reading is reinterpreted as a tool for continuous growth through reconstruction of experiences.
- Methods:** Focusing on John Dewey's educational philosophy, this study conducts an educational philosophical literature study that explores the educational meaning of the formation of children's reading habits. To this end, core educational concepts such as habits, growth, reconstruction of experiences, interactions, and continuity are extracted, focusing on Dewey's major books such as *Democracy and Education* and *Experience and Education*, and their philosophical meanings are closely analyzed and applied to the context of reading habits formation.
-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children's period is a decisive period for habit formation due to its high plasticity, and that the habits formed at this time influence lifelong growth. From Dewey's point of view, reading habits are 'active and intellectual attitudes' that interact with texts and reconstruct experiences. Reading should be a 'one experience' that starts with children's interests and broadens the horizon of experiences. True reading habits are a key mechanism for growth that allows children to learn how to learn on their own and integrate content in life based on their own experiences and knowledge.
- Conclusion:** It is intended to present specific implications that can be applied to the home and school education field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so that reading education can form an active lifestyle that helps sustainable growth beyond simple technical training or evaluation activities. Reading is a fundamental activity that independently participates in and interacts with the experience of meeting the world, and in order to form children's reading habits, families and schools must shift from evaluation-oriented education to growth-oriented education.

Key words : reading habits, reconstruction of experience, continuity, interaction, plasticity